
2011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2011년 8월)

< 목 차 >

1. 리눅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12가지	
2. Enisa, W3C 웹 표준에 대한 보안상 문제점 지적	
3. EU, 표준화에 대한 법 체계 개편 논의 : 포럼/컨소시엄의 필요성 강조	
4. 중국, 2014년 NFC 시장 80억 달러로 성장	
5. 일본 총무성, 2011년도 전략적정보통신연구개발추진제도(SCOPE) 및 그 린 이노베이션 추진사업(PREDICT) 공모결과 발표	
6. ITU,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후변화 워크숍 개최	
7. 호주 CA, 공공 Wi-Fi 네트워크 그룹 설립	
8. ZigBee, 10번째 표준 발표 : ZigBee 게이트웨이	
9. ATIS, VoIP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의 중단 보고가 합리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	
10. ATIS, 신흥 M2M 경제시대에 ICT 기회를 다루는 포커스 그룹 설치	
11. 일본, 2011년판 정보통신백서 발간	
12. W3C, 웹 표준화 활동 가속화를 위해 노력 중	
13. ITU/ISO/IEC 및 EU, 국제적 IoT 표준화 세션 개최	
14. 특허괴물 InterDigital, 주요 이통사의 관심	
◎ 토막뉴스	16
◎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17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8월1일~월31일)	18

1. 리눅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12가지

- 보도날짜 : 2011. 7. 21
- 출처 : MeeGoExperts
- 사이트 : <http://www.meegoexperts.com/2011/07/12-day-exist-linux/>

사람들은 윈도우에 대해선 잘 알지만 리눅스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리눅스는 다음의 대표적인 12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1. 안드로이드 폰 및 태블릿 PC : 리눅스에 기반한 모바일 운영 시스템
2. 대부분의 세계 슈퍼컴퓨터 운영시스템
3. 일본 고속철도 : 일본고속철도의 출발 및 도착에 리눅스 이용
4. 최첨단 교통통제 : 샌프란시스코, 리눅스시스템에 의한 교통 통제장치 사용 시작
5. 도요타의 스마트한 자동차 생산 : 도요타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및 통신 시스템은 리눅스로 운영
6. 리눅스 덕분에 우유를 얻고 있음 : DeLaval (122년의 낙농시설장비회사)는 우유를 얻기 위한 로봇시스템에 리눅스를 사용
7. 뉴욕증권거래소는 리눅스로 운영 : 2007년 리눅스로 바꾸었을 때, 뉴욕증권거래소는 운영비용 감소 및 유연성 향상
8. 전력 소립자물리학 연구 도움 : CERN은 거대 입자가속기 운영에 리눅스 사용
* CERN :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9. 항공교통통제시스템은 목적지에 출발 및 도달에 리눅스를 사용
10. 핵잠수함도 리눅스로 운영 : 2004년 록히드마틴사는 레드햇 리눅스로 운영되는 핵잠수함을 미국 정부에 인도
11.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웹 서비스에 리눅스를 사용
12. 북미 유명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인 TiVo도 리눅스로 운영

2. Enisa, W3C 웹 표준에 대한 보안상 문제점 지적

- 보도날짜 : 2011. 8. 1
- 출처 : ZDnet
- 사이트 : <http://www.zdnet.co.uk/news/security-threats/2011/08/01/enisa-w3c-web-standards-pose-51-security-threats-40093582/>

EU 보안 관련 기관이 신규 웹 표준에 대하여 50여개의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nisa(The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는 최근 W3C 표준 및 규격 특히 HTML5 표준에서 51가지 취약점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표준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브 및 기타 웹에서 사용되고 있다.

Ensia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인 Giles Hogben은 루트킷 타입(rootkit-type)에는 취약하지 않으나 해커들이 브라우저 문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가상의 화면을 이용해 본래의 적법한 화면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해커들은 이용자가 멀웨어(malware)를 설치하도록 하여 원격지에서 이들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HTML5의 심각한 설계 취약점 중에 하나는 HTML 인젝션을 통한 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용자들이 웹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웹에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외부 웹에 남게 된다. 이러한 웹 디자인의 문제로 해커는 거짓 버튼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금융 정보를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보내도록 구매자를 속일 수 있게 된다.

Ensia가 제시한 또 다른 유형의 공격은 브라우저 보안 특성인 샌드박스(sandbox)를 HTML 5 보안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샌드박스에 웹사이트를 입력함으로써 브라우저를 통한 시스템의 액세스를 방지하는데, 샌드박스의 클릭재킹 보호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클릭재킹으로 이용자는 외견으로는 본래 웹인 것처럼 보이는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여 신용정보를 유출시키게 된다.

HMTL 5 규격은 해커가 악성 페이지를 샌드박스 아이프레임에 설치시키고 최상의 내비게이션을 해제시켜, 사용자를 클릭재킹에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

Ensia는 또한 Geoloc-Secure-3 캐쉬 API 규격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해커가 복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위치정보가 캐시에 저장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위치를 누설하는 공격에 노출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W3C는 표준의 일부를 변경할 것이지만 이러한 결함을 완전히 완화하기 위한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하여 관련 W3C 작업반에서 W3C 절차에 따라 취약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 관련 보고서 : http://www.enisa.europa.eu/act/application-security/web-security/a-security-analysis-of-next-generation-web-standards/at_download/fullReport



3. EU, 표준화에 대한 법 체계 개편 논의 : 포럼/컨소시엄의 필요성 강조

- 보도날짜 : 2011. 8. 1
- 출처 : ConsortiumInfo.org
- 사이트 : <http://jfopen.blogspot.com/>

최근 유럽위원회가 ICT 분야에서 ICT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의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EU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난 이후, EU 정책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표준화에 대한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준화 관련 법제 중 주요 부분 중의 하나인 EU 통신문 "유럽표준에 전략적 고찰" (A strategic vision for European standards, COM(2011)311) 서문에서는 "유럽 표준과 표준화가 EU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ICT 포럼/컨소시엄과 공공정책과의 관련성>

- 공공정책 - 규제가 아니고 유럽을 위한 혁신 정책의 중요한 수단
- 혁신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은 기술 융합에 있어서 절차·방법 등을 최적화하는 것 : 예, eEnergy, eHealth, Intelligent Transportation, smart water supply
- 기술 융합은 표준의 조합을 요구 : 표준 로드맵
- 포럼/컨소시엄의 글로벌 ICT표준은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표준을 이용하고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유럽이 혁신분야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ICT 포럼/컨소시엄 표준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 주의 : 이것은 표준 활용에 관한 것이며, 신규 표준개발에 대한 것이 아님
- 새로운 법체계는 정책으로 사용될 포럼/컨소시엄 표준의 조건을 분명히 할 것임(예, WTO의 “품질 기준” 등)

4. 중국, 2014년 NFC 시장 80억 달러로 성장

- 보도날짜 : 2011. 8. 4
- 출처 : abiresearch
- 사이트 : <http://www.abiresearch.com/press/3747-NFC+Payment+Transaction+Values+in+China+Could+Surpass+%248+Billion+by+2014>
- 개요
 - ABI Research는 중국에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지불결제 거래금액이 2014년에 80억 달러이상으로 예측
 - China UnionPay와 같은 금융기관과 제3자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 그리고 China Mobile, China Unicom, China Telecom 등과 같은 중국 모바일 사업자 모두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
- 주요내용
 - 중국 정부는 13.56MHz 주파수 대역의 NFC 디바이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비접촉 NFC SIM 카드가 주요 솔루션으로 여겨짐
 - SIMpass 솔루션은 중국내 운영사업자들에 많은 관심
 - 그 결과, NFC 핸드셋 애드온이 NFC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핸드셋보다 더 많은 출하를 보이고 있음
 - SIMpass 애드온은 250만 대, SD 애드온은 5만대인데 반해 NFC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핸드셋은 45,000대
 - 2011년 3월 말 현재 중국의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8억 6천 8백만 명에 달함

5. 일본 총무성, 2011년도 전략적정보통신연구개발추진제도(SCOPE) 및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사업(PREDICT) 공모결과 발표

- 보도날짜 : 2011. 8. 5
- 출처 : 일본 총무성
- 사이트 :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3_01000020.html

일본 총무성은 SCOPE 및 PREDIC 관련 2011년도 연구개발과제 공모 결과, SCOPE 51건, PREDICT 4건을 채택하였다.

* SCOPE : 전략적 정보통신연구개발 추진제도 (Strateg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D Promotion Programs)

* PREDICT : ICT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사업 (Promotion program for Reducing global Environmental load through ICT innovation)

분류			건수
SCOPE	ICT 이노베이션 창출형 연구개발	신세대네트워크 기술	5건
		ICT 안심·안전기술	4건
		Universal communication 기술	5건
	청년 ICT 연구자 육성형 연구개발		11건
	지역 ICT 진흥형 연구개발		26건
PREDICT			4건
총 계			55건

6. ITU,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후변화 워크숍 개최

- 보도날짜 : 2011. 8. 8
- 출처 : ITU
- 사이트 :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1/27.aspx

ITU와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9월 5일에서 9일까지 첫 번째 그린표준 주간개최

- 일시 : 2011. 9. 5 ~ 9. 9
- 주최 : Telecom Italia
- 주요내용
 - o 2011. 9. 5 - Methodologi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ICT
표준화기구 및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ICT 영향 평가 노력,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ICT 이용 및 활용 지원 방안 및 ICT의 CHG 감소 계산방법 등을 소개
☞ <http://www.itu.int/ITU-T/climatechange/gsw/201102/programme05.html>
 - o 2011. 9. 6 - High Level Segment
 - o 2011. 9. 6 ~ 8 - Moving to a Green Economy through ICT Standards
에너지 효율성 : ICT를 활용한 탄소저감, 미래 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성 및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 기회, ICT 산업과 녹색 대응, 기후변화 효과에 적용하는 핵심 기술로서의 ICT,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그린ICT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과 시장의 연결 등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
☞ <http://www.itu.int/ITU-T/climatechange/gsw/201102/programme06-08.html>
 - o 2011. 9. 8 ~ 9 - Submarine Cables for Ocean/Climate Monitoring and Disaster Warning: Science, Engineering, Business and Law
해저 및 기후 변화 탐지를 위한 도구(과학), 해저 케이블 및 중계 기술 상황(기술), 경제 모델비용 효과성 및 거래(산업)의 주제로 발표
☞ <http://www.itu.int/ITU-T/climatechange/gsw/201102/programme.html>

7. 호주 CA, 공공 Wi-Fi 네트워크 그룹 설립

- 보도날짜 : 2011. 8. 8
- 출처 : CA
- 사이트 : <http://www.commsalliance.com.au/about-us/newsroom/2011-18>

2011년 8월 8일, CA(Communications Alliance)는 공공 Wi-Fi 네트워크 그룹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이 그룹이 담당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호주의 공공 Wi-Fi 네트워크 미래
- 국제적인 개발 및 경쟁/보완 기술
-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강력한 산업 협력을 위한 범위
- 애플리케이션 개발 : 예, 전자 지갑, 새로운 마케팅 채널 및 전략
- 잠재적 산업코드,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의 의미

CA CEO인 John Stanton은 “통신부문 이해관계인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위한 Wi-Fi 개발의 폭넓은 의미를 고려할 때, CA의 회원들은 이 그룹의 참여에 이미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이 그룹의 첫 번째 회의는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 참고 : CA (Communications Alliance) -호주의 통신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8. ZigBee, 10번째 표준 발표 : ZigBee 게이트웨이

- 보도날짜 : 2011. 8. 9
- 출처 : industry Serach / ZigBee Alliance
- 사이트 : <http://www.industrysearch.com.au/Features/ZigBee-Alliance-launches-tenth-standard-ZigBee-Gateway-7706>
<http://www.zigbee.org/Default.aspx?Contenttype=ArticleDet&tabID=332&moduleId=806&Aid=339&PR=PR>

2011년 7월 27일, ZigBee는 지그비 게이트웨이(ZigBee Gateway™)라고 불리우는 10번째 표준을 발표하였다. 지그비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지그비 게이트웨이 장치를 구현하고 지그비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연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연결을 위한 간단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지그비 게이트웨이는 새로운 분류인 "지그비 네트워크 장비(ZigBee Network Devices™)의 첫 번째 표준이며, 지그비 네트워크 장비는 지그비 프로(PRO) 기반 네트워크를 지원·확장하기 위한 장비별 규격을 위한 분류이다. 향후 현재 개발 중인 브리지 및 레인지 익스텐더 장비 관련 표준이 지그비 네트워크 장비 분류에서 지그비 게이트웨이에 포함될 것이다.

ZigBee게이트웨이는 제조업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제품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에 연결성을 제공하고 추가로 소비자를 위해 고안된 다양한 클라우드 및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현재 지그비 게이트웨이는 다음의 표준을 지원한다.

- ZigBee Building Automation TM
- ZigBee Health Care TM
- ZigBee Home Automation TM
- ZigBee Retail Services TM
- ZigBee Smart Energy TM
- ZigBee Telecom Services TM

영국의 ABI Research에 따르면 IEEE 802.15.4 가정용 무선 센서 칩셋의 전세계 출하량은 2010년 8백 50만에서 2015년에는 2억 4천 2백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그비 칩은 IEEE 802.12.4 표준에 기반해 있으며 약 55%가 지그비 기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9. ATIS, VoIP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의 중단 보고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

- 보도날짜 : 2011. 8. 9
- 출처 : ATIS
- 사이트 : <http://www.atis.org/PRESS/pressreleases2011/080911.html>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는—"중단 보고에 관한 FCC 규칙 Part4를 상호연결된 VoIP(Interconnected VoIP) 또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s)에게 확대하는 FCC 개정안"에 대하여 NRSC(Network Reliability Steering Committee)를 대신하여 의견을 제출했다. ATIS는 상호 연결된 VoIP 서비스 사업자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중단 보고의무를 확대하는 FCC 개정안은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ATIS는 FCC에 대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정상적인 네트워크 관리 과정을 통해 보고 기관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기시간이나 지터(jitter) 같은 성능 특징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는 보고 의무를 반대하였다.

상호 연결 VoI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ATIS는 이러한 보고는 현재 FCC 규칙 Part 4에 따른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보고자에 대하여 현재 30분 중단이 아니라 120분 중단하는 경우의 중단에 대해서만 중단보고를 하도록 보고 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ATIS 의견 : http://www.atis.org/legal/Docs/NRSC/OutageReporting_NPRM_8-2011.pdf

10. ATIS, 신형 M2M 경제시대에 ICT 기회를 다루는 포커스 그룹 설치

- 보도날짜 : 2011. 8. 11
- 출 처 : ATIS
- 사 이 트 : <http://www.atis.org/PRESS/pressreleases2011/081111.html>

ATIS는 TOPS(Technology and Operations) 위원회 주도로 M2M-FG (Machine-to-Machine Focus Group)을 설치하였다. 이 포커스 그룹은 스마트그리드와 M2M 및 스마트 자동차 (Connected Vehicle)와 관련된 ICT 솔루션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핵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발표할 것이다.

ATIS 의장 및 CEO인 Susan Miller는 "M2M은 상당한 수익 창출 기회와 함께 완전한 에코시스템 및 경제체제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고, "M2M과 관련된 부가가치 서비스는 비교적 ICT를 위한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있으며, 포커스그룹의 작업은 ATIS 회원사에게 급성장하는 분야에 대한 ICT의 기여를 형성하고 정의하는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올 초, ATIS TOPS 이사회는 M2M,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자동차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팀을 설치하고 추가로 표준의 평가 및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자동차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통 M2M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M2M 포커스그룹은 다음의 주제를 다루고, ATIS 비회원 및 타 표준개발기구와의 협력 개발을 담당한다.

- SIM 교체가 필요 없는 단말 및 SIM 내장 단말을 위한 사업자 이동성(번호이동성)
- 필요시 서비스 간 플랫폼 통신
- 프로비저닝(provisioning), 활성화(activation), 결제
- 추상화 계층
- 서비스 전달 플랫폼

11. 일본, 2011년판 정보통신백서 발간

- 보도날짜 : 2011. 8. 13
- 출처 : RBB Today
- 사이트 : <http://www.rbbtoday.com/article/2011/08/13/79933.html>

■ 개요

○ 일본 총무성은 2011년판 정보통신백서를 발간

- 2009년 일본의 정보통신 산업 시장규모는 87.7조엔으로 전체 산업의 약 10%를 차지
- GDP 성장률 기여는 마이너스 0.3%로 199년 이후 첫 마이너스, 동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전 산업 분야에서 최대 115.9조엔, 고용유발수는 711.5만명

▣ 정보통신백서 :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index.html>

■ 주요내용

○ 동일본 대지진의 정보통신 피해상황 보고

- 통신의 피해; 약 100만 고정통신 회선이 불통, 약 29,000개(5개사 합계)의 휴대전화 PHS 기지국 중지
- 통신 폭 : 휴대전화 음성 통화는 최대 70~95%의 통신 규제 실시, 패킷은 잠시 NTT 도코모가 30%의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곧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타사는 규제를 하지 않음
- 지진 직후 관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지진 관련 정보 취득시 중시하는 매체로 80.5%가 NHK, 56.9%가 민영방송, 3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43.2%로 NHK의 절반에 그침
- 소셜미디어의 정보는 18.3%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지만 일부 매니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화 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과제

○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이용 현황과 ICT 활용 능력의 격차

- 소셜 미디어에 대해 사람들의 관계를 심화하여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잠재력은 크다고 분석
- ICT의 활용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
-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20-29세"가 97.4 %로 최고, 초등학생 ("6-12세")에서도 65.5%로 60%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에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60%를 밑돌고 있음

12. W3C, 웹 표준화 활동 가속화를 위해 노력중

- 보도날짜 : 2011. 8. 16
- 출처 : cnet
- 사이트 : http://news.cnet.com/8301-30685_3-20092839-264/w3c-works-to-speed-web-standard-creation/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은 웹 기술 표준화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신규 표준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데 다소 덜 번거로운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수개월 간 개발중인 소위 커뮤니티 그룹(Community Group)을 이용할 수 있다. W3C는 웹 지불, 웹 교육, 시맨틱 뉴스 등을 포함하는 8개 커뮤니티 그룹을 발표하였다.

웹 표준을 쉽고 빠르게 창출하는 것은 현재 W3C 최우선 사항이다. 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느리고 대응하지 못하는 W3C는 브라우저 제작자나 웹 개발자들에게 뒤처지게 된다. 그 예가 2004년 HTML 개발 반대 결정이다. 이후 WHATWG(Web Hypertext Applications Technology Working Group)가 결성되어 지금의 HTML5를 개발하였다. 지금은 W3C가 다시 가담하여 2014년에 HTML5를 승인할 예정이다.

W3C는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기업, 연구기관 및 정부와 접촉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광범위한 W3C 소셜 망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W3C 협력 툴을 활용하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나아가, W3C는 의견이 같은 개인들이 모일 수 있는 비즈니스 그룹(Business Group)을 제시하고 특정 산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일, 가스, 화학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그룹이 있다.

최근 W3C 회원은 웹 기술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자동차, 소비자 전자기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여 현재 325개사이다. 또한 W3C 표준은 ISO의 Fast-Track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다.

13. ITU/ISO/IEC 및 EU, 국제적 IoT 표준화 세션 개최

- 보도날짜 : 2011. 8. 17
- 출 처 : ITU
- 사 이 트 : <http://www.itu.int/ITU-T/newslog/ITU+Hosts+An+International+IoT+Standardization+Session+Including+ISO+IEC+And+The+EC.aspx>

IoT-GSI (Global Standards Initiative on the Internet of Things) 두 번째 이벤트가 2011년 8월 22일에서 26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와 더불어 ITU-T SG 17(보안) 회의가 개최된다.

IoT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사물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커다란 표준화 도전이 될 수 있다.

글로벌 IoT 표준의 개발은 IoT-GSI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목표이다. 복잡한 전세계 표준화를 조화조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ITU는 8월 23일 "IoT 국제표준화 (international IoT standardization)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4개의 기관에서 패널로 참여한다.

- ISO - Rob Steele (Secretary General, ISO)
- IEC - Gabriel Barta (Head of Technical Coordination, IEC)
- ITU - Bilel Jamoussi (Chief Study Groups Department, ITU-T/TSB)
- EC - Florent Frederix (Head of Sector,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EC)

ITU 회원들은 IoT 표준에 관한 작업 추진에 열성적이며, ITU-T 권고안 "IoT - 개요"는 개발 중이며, 2012년 2월 승인될 예정이다. 그러나 IoT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SG13 이메일 리플렉터에서 진행 중이다.

IoT의 성공은 원활하게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의 개발에 달려있다. 이런 이유로 "IoT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IoT standardization) 특별 세션은 2006년부터 이 분야에서 표준화 활동 조정을 위하여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인 IoT 합동조정그룹 (JCA-IoT) 체계에서 구성되었다. JCA-IoT 또한 2011년 8월 22일과 23일에 개최되며, ETSI, TTA, GSMA, ISO/IEC JTC1 GS1 기타 서브위원회 등의 대표가 참여한다.

14. 특허괴물 InterDigital, 주요 이통사의 관심

- 보도날짜 : 2011. 8. 18
- 출처 : RBB Today
- 사이트 : http://wirelesswire.jp/Watching_World/201108181030.html

■ 개요

-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의 행방에 관심 집중
 -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현재 회사 매각을 포함하여 검토중이며, 구글, 애플, 노키아, 퀄컴, 삼성이 관심을 가짐
 - 인터디지털이 보유한 무선 통신 및 노이즈 캔슬링 관련 등 특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 InterDigital : 자사 특허를 타사에 라이선스 계약으로 얻은 매출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로, 보유가 특허는 8,800개에 달함. 특허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3G 및 4G/LTE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 이동통신 관련 특허와 노이즈 캔슬링 관련 기술 특허 등이며, 특히 3G 관련 기술은 삼성, 애플, 리서치 인 모션 (RIM), HTC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음

■ 주요내용

-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은 모토로라 특허 포트폴리오는 미국에 집중되어 글로벌 전개에 약점, 경쟁 업체가 특허를 가진 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단점을 가짐
-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Nortel)이 약 6천여 개 자사 보유 특허를 매각하는 경매를 6월에 실시
 - 구글, 인텔, 애플 등이 참여하여 애플/MS 컨소시엄이 예상 금액을 크게 웃도는 45억 달러에 낙찰한 바 있음

토막 뉴스

- ISACC, 제16차 GSC 개최 (2011.10.30~11.3)
 - ISACC (ICT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는 2011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Nova Scotia주 Halifax에서 제16차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개최
 - 참조 : <http://www.gsc16.ca/english/index.html>
- 디트로이트보고서, 4G로 2016년까지 미국내 77만여 일자리 창출 예상
 - 디트로이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4G LTE에 2012~2016년 간 약 250억불에서 530억불의 투자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약 37만에서 77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730억불에서 1,510억불의 GDP 성장을 예상
- 일본, 2009년 유통정보량 DVD로 하루 약 2.9억장
 - 일본 총무성은 2009년도 "정보 유통 인덱스" 데이터 측정 결과를 공표
 - 2009년 유통 정보량은 약 7.6 제타비트(7.61×10^{21} 승 비트 : 하루에 DVD 약 2.9 억개 상당)이며, 유통 정보량의 약 98.5 %는 방송이 차지
- IDC일본, 일본 기업의 보안 대책, 2011년 투자 감소 경향
 - 일본 기업 820개사의 정보 보안 실태 조사 결과, 2010년에 비해 투자를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일본 NICT, 세계 최고 속도 40Gbps의 무선 전송 성공
 - 기존의 전송 실험 최고 기록은 27Gbps이며, 40Gbps은 무선 LAN의 약 130 배의 속도로, 30GHz에서 3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국제회의명	기간/장소	주요이슈	대응전략
제21차CIK UNIOT-WG 및 14차 NID/USN-WG	중국 북경 '11.7.10~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의 정의 및 Overview 문서에 대한 표준화 협력 - Future Network 의 표준화 향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Overview 문서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 향후 일본과의 공조 및 중국에 대한 지속적 설득 필요
ISO/IEC JTC1 SC29 WG11 (MPEG) 97차	이탈리아 토리노 '11.7.14~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EG Video Subgroup - 3D Video Coding (3DVC) - 3DTV 방송을 위한 MPEG-2 TS 규격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PEG 3DVC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시점 영상과 깊이영상을 동시에 부호화하는 기술은 장차 3차원 영상 서비스에 필수적이므로, 2011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MPEG 3DV 표준에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 - 3DTV 규격은 한국/ 일본/ 미국이 주도하여 제출된 규격으로 적극 지원하며, 향후 국내 TTA규격에 반영 예정 - Stereoscopic Video AF는 국내 삼성/경희대가 요청한 부분으로 최종 국제규격으로 승인되어 국내 산업에 반영할 예정임 - DASH의 경우, Editing 기간 이후 나온 문서를 기반으로 최종 국가의견을 정할 예정
IEEE802표준화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11.7.17~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802.15.4e TG는 WPAN 15.4 성능 개선을 위한 MAC 확장 방안을 논의 - IEEE 802.15.4k TG는 PHY 와 MAC을 15-4-2011 의 amendment로 개발 중 - IEEE 802.15 SG PSC 에서는 개인공간통신 관련 표준 그룹 구성 논의 - IEEE 802.21c TG의 보안 시그널링 매커니즘 및 프로토콜에 대하여 논의 - IEEE 802.15의 WNG(netx generation) 이슈 - 802.16p m2m - ITU R-WP5A에 WiMAX M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802.15.4e의 초기 단계부터 주요 position 획득, 고유의 TDMA/채널호핑 MAC 알고리즘을 표준화 기술 채택추진 - IEEE 802.15.4k의 주요 기술로 Multiplexed -DSSS modulation 기술과 TDMA MAC 을 채택하도록 추진중 - IEEE 802.15 SG PSC에서 Groupcast 기술 표준화를 위한 TG 가 되도록 추진중 - 국내에서 해당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으므로, 해당 표준과 관련된 핵심 IPR 을 국내의 연구기관, 학계 및 업체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 - LED-ID와 관련한 관심을 보이면서 IEEE 802.15.7 VLC의 뒤를 잇는 새로운 SG 구성 가능 - 주도적으로 VLC이후의 후속 버전에 대한 주도적인 표준화를 행할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 - 현재 802.16m이후의 기술에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802.16p와 802.16n Group에서 추진하고 있는 M2M표준과 고신뢰성 통신망의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임
ITU-T SG16 WP2	미국 Andover '11.7.18~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 (Advanced Multimedia System) 애플리케이션 핸드오버의 Information flow -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시그널링 절차의 표준화에 조기 참여 필요 - 국내에서 텔레프레즌스 분야의 기술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81차 IETF 국제표준화 회의	캐나다 퀘벡시티 '11.7.24~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w Mobility 기고서 제안 기고서의 WG Draft 추진 -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 기술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기반의 Flow Mobility 기술 및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에 관하여 새로운 표준화 아이টে에 들어갈 요소 기술들에 대한 꾸준한 분석 및 IPR 확보 필요
3GPP2 7월 Super Meeting	캐나다 '11.7.25~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2M Numbering Recommendations - GREEN Solutions and RAN Power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도할 예정(M2M Numbering, - DRMP)

※ 자세한 내용은 TTA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홈페이지(<http://expert.tta.or.kr/>) 참고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8월 1일~31일)

■ ※음영표시 : 본문 수록

보도날짜	최 신 소 식	출처
2011.7.21	리눅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12가지	MeeGoExperts
2011.8. 1	유럽, 차세대 웹 표준의 보안성 강화 필요	computing
2011.8. 1	Enisa, W3C 최신 웹 표준에 대한 문제점 지적	ZD net
2011.8. 1	EU, 표준화에 대한 법 체계 개편 논의 : 포럼/컨소시엄의 필요성 강조	ConsortiumInfo.org
2011.8. 4	NIST, 표준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신속한 문서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NIST
2011.8. 4	중국, 2014년 NFC 시장 80억 달러로 성장	abiresearch
2011.8. 5	총무성, 2011년도 전략적정보통신연구개발추진제도(SCOPE) 및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사업(PREDICT) 공모결과 발표	총무성
2011.8. 8	ITU,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후변화 워크숍 개최 : ICT의 중요성 강조	ITU
2011.8. 8	호주 CA, 공공 Wi-Fi 네트워크 그룹 설립	CA
2011.8. 8	ISACC, 제16차 GSC 개최 (2011.10.30~11.3)	ISACC
2011.8. 9	ATIS, VoIP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의 중단 보고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ATIS
2011.8. 9	ZigBee, 10번째 표준 발표 : ZigBee 게이트웨이	Industry Search
2011.8.08	일본, 2009년 유통 정보량 DVD로 하루 "약 2.9억 장"	RbbToday
2011.8.10	SDO 클라우드 패권을 위한 "전투중"	Networkcomputing
2011.8.11	ATIS, 신형 M2M 경제시대에 ICT를 위한 기회를 다루는 포커스그룹 설립	ATIS
2011.8.11	ICT가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	UN Year of Youth
2011.8.13	일본, 2011년판 정보통신 백서 발간	RBB Today
2011.8.16	IDC일본, 일본 기업의 보안 대책, 2011년 투자 감소 경향	RbbToday
2011.8.16	W3C, 웹 표준화 활동을 가속화 노력중	cnet
2011.8.17	ITU/ISO/IEC 및 EU, 국제적 IoT 표준화 세션 개최	ITU
2011.8.17	ANSI, 전기자동차 관련 표준에 관한 보고서 DOE에 제출	ANSI
2011.8.18	특허괴물 InterDigital, 주요 이동사의 관심	RBB Today
2011.8.18	리눅스 SPDx,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 발표	desktoplinux
2011.8.19	IEEE, 3D 디스플레이 장치 품질평가 등 새로운 표준 발표	IEEE-SA
2011.8.20	일본 NICT, 세계 최고 속도 40Gbps의 무선 전송 성공	Mycomp
2011.8.22	디트로이트사, 4G로 2016년까지 미국내 77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ZD net
2011.8.24	필리핀 NTC, 디지털 지상파 TV에 일본 ISDB-T 표준 적용하기로 결정	Satellite
2011.8.25	OGC 및 OpenMI 협회, 컴퓨터 모델링 관련 공개표준 개발 및 홍보에 관한 MoU 체결	Directions Magazine
2011.8.25	중국 Vimicro기업은 , 중국 SVAC의 디지털 감시 표준 채택을 위해 5개의 중요 정부 기관과 제휴 발표	marketwatch
2011.8.30	구글, 웹 스피드 향상위한 "글로벌 인터넷 스피드업 사업" 발표	eWEEKeurope
2011.8.31	IETF working group, 페이스북 및 구글이 지지하는 소셜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OAuth 2.0이 곧 완료 예정	the brainyard